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I.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8월 전망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월보다 소폭 감소

- 7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는 전월보다 2.0p 낮은 64.7로 조사되어 전년 동기보다는 높지만 지난 5월과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추후 신규 공사물량의 증대 등에 대한 현시점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²⁾.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보다 5.5p 상승한 81.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지방권은 2.5p 하락한 59.3으로 나타남.

<표-1>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8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2017년	7월 평가	64.7	81.1	59.3
	8월 전망	61.3	78.4	55.8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로 조사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2)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의 건설업 국내총생산(GDP)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는 추후 전문건설공사의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보다 하도급의 상승폭이 우세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6월에 비해 원도급은 2.9p 상승한 56.7, 하도급은 5.6p 높아진 56.0으로 나타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9→81.1)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 지방(47.4→48.7)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8.3→70.3)의 상승폭은 미미한 반면, 지방(40.8→51.3)에서는 크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음.

<표-2>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7월 평가	56.7	81.1	48.7
	8월 전망	50.0	75.7	41.6
하도급	7월 평가	56.0	70.3	51.3
	8월 전망	49.3	62.2	45.1



<원도급>



<하도급>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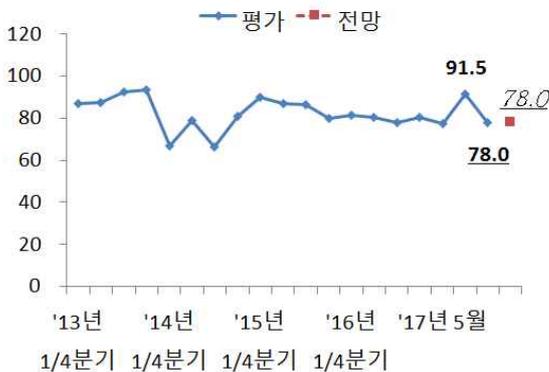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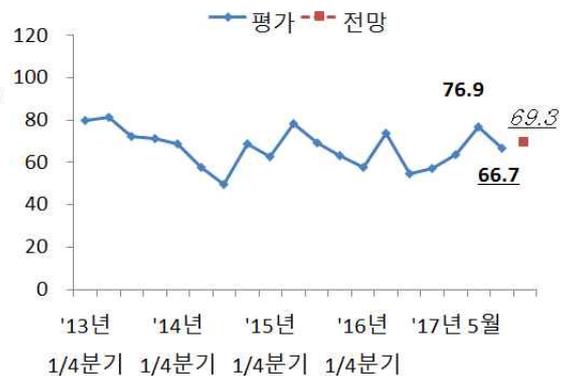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6월보다 13.5p 하락한 78.0,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10.2p 하락한 66.7로 나타남³⁾.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97.6→89.2)과 지방(88.2→74.3)에서 모두 유사한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으며, 지방보다 수도권의 현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지수도 수도권(85.4→70.3)과 지방(72.4→65.5)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수도권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조사됨.

<표-3>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7월 평가	78.0	89.2	74.3
	8월 전망	78.0	83.8	76.1
자금조달	7월 평가	66.7	70.3	65.5
	8월 전망	69.3	64.9	70.8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3) 이는 전월의 평가치가 평월보다 높았던 것에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조사치만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자금관련 현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전월에 이어 상승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6월보다 6.1p 높아진 54.0로 조사되어 최근 3개월간의 상승세를 지속함. 하지만 이번 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조사결과는 수도권(51.2→45.9)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46.1→56.6)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간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표-4>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7월 평가	54.0	45.9	56.6
	8월 전망	58.0	45.9	61.9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4. 자재수급지수⁴⁾

○ 자재수급지수는 크게 하락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지난 6월보다 하락한 100.7(107.7→100.7)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자재수급문제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4.6→86.5)의 자재수급문제⁵⁾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103.9→105.3)에서는 전월에 비해 별다른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5>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7월 평가	100.7	86.5	105.3
	8월 전망	100.0	94.6	101.8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4)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5) 이는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 들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골재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과 수급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 조사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

5. 건설장비수급지수⁶⁾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보다 크게 하락

- 장비수급지수는 지난 6월보다 6.8p 낮아진 112.8(112.8→106.0)로 나타났으며, 다음 8월의 전망치는 이번 달보다 소폭 하락한 105.3로 전망됨. 이같은 결과는 수도권에서의 급격한 지수하락이 장비수급지수에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2.2→91.9)에서는 장비수급지수가 크게 하락한 반면 지방(113.2→110.6)은 전월에 비해 소폭의 하락을 나타냄.
- 이처럼 수도권에서의 장비수급이 지방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간 주택시장의 호황을 통해 수주된 공사물량이 수도권에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현재의 분양시장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표-4>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7월 평가	106.0	91.9	110.6
	8월 전망	105.3	97.3	108.0

6)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7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64.7	81.1	59.3
		차월 전망	61.3	78.4	55.8
공사무량	원도급	금월 평가	56.7	81.1	48.7
		차월 전망	50.0	75.7	41.6
	하도급	금월 평가	56.0	70.3	51.3
		차월 전망	49.3	62.2	45.1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78.0	89.2	74.3
		차월 전망	78.0	83.8	76.1
	자금조달	금월 평가	66.7	70.3	65.5
		차월 전망	69.3	64.9	70.8
인건비		금월 평가	54.0	45.9	56.6
		차월 전망	58.0	45.9	61.9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100.7	86.5	105.3
		차월 전망	100.0	94.6	101.8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106.0	91.9	110.6
		차월 전망	105.3	97.3	108.0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